

글쓰기란 무엇인가?

노은영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내가 글쓰기를 시작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였다. 과제나 호국 보훈 백일장을 위한 글짓기가 아니라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것을 글로 옮긴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일기장에 조심스럽게 한 두 문장을 적어나가면서 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설레고 두근거렸다. 하지만 지금 다시 그 글들을 보면 유치하고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 표현이 서툴고 구성이 영성해서가 아니다. 웬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어색함과 낯설음이 그 글들을 유치하게 만든다. 내가 그 사이 많이 자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의 나를 어색하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당시 내가 글을 ‘꾸며’ 썼기 때문이다.

나는 글을 쓰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남의 글을 읽고 멋진 문장이 있으면 그것과 비슷한 것을 써보는 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멋진 말이 생각나면 그것을 쓰기 위해 그 문장에 맞는 감정을 지어내는 결과마저 생겼다. 내가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드는 자연스러운 생각을 쓰려 한 것이 아니라 낙엽을 보며 가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을 썼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쓰여진 글은 괜히 멋을 부리고 유식한 척 하는 것 같은 느낌만 줄 뿐 나 스스로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했다. 내 생각을 진실하게 쓰려고 정성을 들여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자신의 이야기가 진실하게 담기지 않은 글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근 내가 써본 가장 완결된 글은 졸업논문이다. 나는 논문을 쓰면서

중학교 시절 느꼈던 글쓰기의 어려움을 다시 느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내가 써 본 글들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라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 많은 자료를 읽고 그것을 분석한 후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조직해 내는 총체적 작업으로서의 논문쓰기는 어느 글쓰기보다도 훨씬 고된 작업이었다. 이렇게 낯설고 어려운 일에 부딪히니 자연스럽게 쉬운 길이 없는지 궁리하게 되기도 하였다. 왜 표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인용들이 이루어지는지 알 것 같았다. 글의 형식이나 논지의 흐름을 무턱대고 흉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논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형식을 강구하지 않고 남의 것을 흉내 낸다면 내용과 형식이 겉돌아 글을 망치게 된다.

나는 논문쓰기가 어렵지만, 성실하게 그 과정을 완수하는 것이 나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전략은 ‘질문하기’였다. 거의 매 단락 매 문장을 쓸 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논문을 통해서 말하려는 주제가 무엇인가?’, ‘주제를 드러내는 데 이 문장이 좋은 재료인가?’, ‘논지를 다음 단계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가?’, ‘지금 하려던 말은 나의 생각인가? 남의 생각인가?’ 이런 질문들로부터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을 얻었다.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는 나 스스로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내 생각이 정리되고 간결하게 조직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글을 성실하게 쓰겠다고 결심하여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글을 통해 내 머릿속의 생각을 상당히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 점이다. 힘들지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다시 글로 돌아와 해답을 정리하려고 애쓰는 과정 속에서 논문의 의미와 더 나아가서는 내 공부가 지닌 의미도 차츰 분명해졌다. 만약 내가 다시 남을 흉내내거나 본뺐다면 그 글은 그럴싸했겠지만 남의 글이 되고 말았을 것이며 글을 통해 나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도 없었으리라는 점에서 나는 내 서툰 논문에 자부심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글쓰기는 성실하게 나와 대화하여 나만의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앞으로 내가 쓰는 모든 글이 이렇게 쓰여지고 그리하여 그것을 통해 다른 세계와 소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